

해운대불교회관 개원



해운대불교회관이 3월 19일 개원했다.

영축사 부산포교원 해운대불교회(포교원장 각문)이 3월 19일 해운대 중동에 개원했다.

각문 스님은 "한 법당이 열리면 한 불교도가 열린다는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이곳 도당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며 다 같이 자기광명을 찾자"고 인사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월탄 스님을 증명법사로 10선 보살계 수계식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영축산 영축사 약사여래불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안마 불교 문화 사진초대전' 및 들꽃·꽃꽂이·들지축제, 작은 음악회, 모금바자회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051) 747-5108 박지원 기자

부산 불교복지기관 개신교 3배

부불사협 부산불교복지 100년 대계 개선방안 내놔

부산지역 불교사회복지기관이 개신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인 불교 15개, 개신교 10개, 가톨릭 4개, 원불교 1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교계 법인의 산하기관은 약 52개로 개신교 약 17개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 관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사협)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자선활동으로 서로 협동하고, 일반 사회에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도 자선활동을 펼칠 것을 가르치고 있다"며 "불교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종교관련 조직은 활용할 수 있

는 인적, 물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종교와 관련이 없는 조직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재 불교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스님과 이사진, 불자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위상에 비해 활동이 저조하다는 평가도 일관적이다.

부불사협은 "불교계에서 토지나 재정이 있음에도 위탁기관에 의존해 사업의 지속성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활용 가능한 재원이나 자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불사협은 부산불교복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불교사회복지포럼 및 연구 등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협의회를 법인화해 연대행사 및 다양한 사업 전개에 힘을 실어주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양적성장에는 따른 질적 성장을 꾀하며 △불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매뉴얼을 갖춰 불교계기관으로서의 차별화 등을 꼽았다.

정여 스님은 "자비 사상을 담은 대사회사업이 10년 사이 괄목할 성장을 이룩해, 불교 복지법인이 부산복지계 전반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진여봉사단 창단

정인자 회장 취임

13년간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해온 부산 진여회가 '진여봉사단'으로 거듭났다.

대한불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 진여회는 3월 26일 오후 7시 글로리뷰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인자 신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남보타월 원장의 발원문,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및 회기 전달, 공로패 전달, 정각 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정인자 신임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참나를 찾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여봉사단은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호국영령위령제를 비롯한 보훈사업, 재소자 교화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청소년장학사업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14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사회복지법인 해원 이사장·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작은 보시 모여 햇불이 될 때까지"

영도구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해원(이사장 원허, 해원정사 주지)이 수탁운영한지 꼭 3년째 되던 날,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어느 국악인의 흥겨운 민요가락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 할머니들이 하나둘 어깨춤을 추며 걸어 나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춤을 춘다. 이사장 원허 스님은 모두의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환한 미소로 박수쳐 축하해주었다.

얼지던 근본이념은 모두 같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즉,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시했다는 생각이 모두 비워진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도

을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란 것은 없기에, 남에게 주었지만 정작 나에게서 없어진 것은 없다. 사실 머



'아름다운 노후 위한 희망역' 여기예요

몇 주년 행사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 영도구에 사는 어르신들의 기쁜 날이었다.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관장 선공 스님 및 복지관 임직원,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지역 어르신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3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원허 스님은 부산 포교의 중심도량 해원정사 주지이면서 사회복지법인 해원의 이사장으로, 사회복지의 원력을 세운지 5년.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인 자리아타(自利利他)를 기본으로 지역사회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해원에서는 영도구노인복지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선재어린이집, 고산장학회 등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기 다른 사

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한 개의 촛불도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맨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듯, 우리가 그동안 나눠온 작은 마음들이 촛불이 아닌 햇불로 더욱 커져, 이 세상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스님의 작지만 큰 앞으로의 포부이다.

원허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해원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최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해 삶의 활기와 희망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희망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포교란 불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스님의 복지관 운영 또한 커다란 포교요, 세상을 향한 진정한 '무주상보시'다. (051)417-6344~6, www.youngdosenior.or.kr

박지원 기자

"불교박람회 부산불교 브랜드로..."

부산불교연합회 제1회 불교산업박람회 성료

침체된 국가경제 살리기 및 불교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산업박람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3월 26-29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불교산업박람회를 성료했다.

전시관은 '홍보·안내관' '부처님오신날관' '불교용품·선물관' '불사관' '정보관' '체험관' '웰빙관' 등 7가지 테마에 따른 전문관으로 특성화했다.

부대전시 및 행사는 한국경제와 불교기업 발전 기원법회, 불교실업인 교류식, 세계 6개국 유물 특별전, 청소년 불교UCC 대회 등 다채로운



3월 26-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불교산업박람회에서 스님들이 다양한 다구들을 둘러보고 있다.

행사가 함께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서는 최초로 6개국 국제 불교유물 전시 및 경매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불자기업 및 불교유관업체와 국내·외 불교상품, 불교종단 및 사찰, 신행단체 등이 참가해, 다양한 불교상품과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러한 불교 산업이 보유한 상품과 콘텐츠를 육성해 세계적

의 경쟁력을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2009년 '신규전시회 개발분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여 스님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무욕의 마음으로 이룩된 불교작품들을 만나, 욕망이 이끌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향후 불교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교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불교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산업의 활력소를 만들 것이라 가능성을 열었다.

인 컨벤션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2009년 '신규전시회 개발분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지원 기자

지도자포럼 박수관 회장 취임

3월 19일 회장 취임식 및 새 집행부 위촉

부산 정치·경제를 이끄는 불자CEO들의 모임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하 지도자포럼) 2대 회장으로 박수관 회장(광교항기독교 부산모임)이 취임했다.

지도자포럼은 3월 19일 오후 7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3월 월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갖고 신임회장 및 새 집행부를 위촉했다.

설동근 초대회장은 이임사에서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부산재가불자의 구심점이 되도록 소임을 잘 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수관 신임회장은 "초대회장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괄목할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불법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박수관 신임회장(오른쪽)과 설동근 초대회장(왼쪽).

포럼의 근본을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 2대 회장단은 앞으로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대중화의 중심축으로 포럼, 세미나 등 영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불법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 운동의 리더로 앞장서 실천하며, 불교계 화합 등을 목표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봉축현수막 및 봉축용품 안내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최고급 원단을 사용합니다.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Advertisement for Buddhist birthday banners. It shows two examples: one for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and another for the general theme 'Sharing merit together'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It also lists sizes (90cm x 6m, 7m, 8m, 10m, 12m) and materials (105cm, 150cm fabric).

※ 청사초풍등 (5가지 1세트)

2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가능.



※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 봉축 장엄 현수막



※ 거치형 현수막



※ 봉축 어깨띠 (사찰명 인쇄 가능)

색상: 분홍, 군청, 주황, 밤색, 하늘, 연두, 노랑

